

대한불교진각종은 7월 26~28일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서 '2016 회당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사진은 올해 창종 70년을 맞은 진각종이 26일 금강원서 100년 서원을 담은 대형 풍등을 밤하늘에 띄워 보내는 모습.

고희 맞은 진각종, 100년을 꿈꾸다

2016 회당축제 7월 26~28일, 울릉도 일대 달궈
무진서원불사 · 독도아리랑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깎아지른 산세가 위용을 뽐내고, 눅눅한 바닷바람이 살갗을 쓸고 지나가는 울릉도. 인구 70%가량이 개신교신자인 이곳에 조금은 낯선 죽비소리가 노을 진 뒤의 적막을 깼다. 탁, 탁, 탁…. 이윽고 지혜와 자비를 강조하는 진언인 육자진언이 바람을 타고 곳곳에 울려 퍼졌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1947년 6월 14일 회당 손규상 대종사가 진각종을 창종한지 70년 되는 올해, 한국불교 최대 밀교종단으로 거듭난 진각종 진언행자들이 종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국가와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바로 7월 26일 회당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서 열린 '2016 회당문화축제-진각 70년 종단과 국가발전을 위한 금강원 무진서원불사'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창종의 기원이 된 울릉도에 인연지로서의 은혜를 갚고, 회당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창종 70년과 회당문화축제 15회를 기념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각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코자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

총인 성초 정사의 증명 아래 진행된 행사는 교리참회와 육바라밀 꽃 공양으로 문을 열었다. 청년불자 6명은 각각 꽃바구니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금강원 회당 종조 진영에 공양을 올렸다. 이후 대중은 강도발원(입재발원)과 오대서원, 종조법어 봉독을 하며 진언행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진각종의 70년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동영상 상영이 끝난 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법어를 통해 향후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역설했다.

회정 정사는 "올해 초 종무행정 방침을 '혁신으로 진각 100년을 향한 토대 마련의 해'로 정하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는 교리와 교법 등 진각종을 진각종답게 하고, 행정시스템을 포함해 포교와 교화에 걸림돌이 되는 겉치레를 과감히 바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종조께서는 본각과 시각이 구경에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다 깨친 것을 진각이라고 하셨다. 진언행자들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정 정사는 △총인원 성역화불사 원만회향 △세계불교도우의회 성공적 개최 △종단 70년사 정리 등을 위해 대중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정 정사는 종단이 펴낸 〈진각종 70년사〉(전자도서)를 종조 진영에 봉정했다. 이 책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2개씩 순차적으로 작업해 내년 초까지 총 50권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진각종 홈페이지에 전자도서 형태로 제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진각종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포교 · 교육 · 복지 · 문화 등 종책별 각 분야의 논고를 집대성할 계획이다.

봉정식 이후에는 회정 정사가 관정의식을 통해 대중에게 각각 관정수를 내렸다. 꽃 한 송이를 들고 금강원에 들어간 신도들은 관정수를 받은 뒤 더욱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종단 불사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행사 말미에는 종단 내빈이 대표로 진각종단의 서원을 담은 대형 풍등을 하늘로 날려 보냈다. 이와 더불어 청년불자들은 행사를 기념하는 플래시몹을 선보여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자원봉사자로 행사에 참여한 진각종 청년회 강혜진(27) 씨는 "진각복지재단 합창단과 진각종 청년회 등 청년 자원봉사자만 50여 명이 동참했다. 오고 싶지만 일정상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며 "대규모 행사를 치른 뒤 청년회원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신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회당문화축제는 불자들을 하나로 엮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학교 공지로 축제를 알게 됐다는 정서인(진선여중1) 양은 "가끔씩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다. 덕분에 회당문화축제에도 관심이 생겼다"면서 "멀리 떨어진 울릉도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즐겁고 신난다"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축제에 참가한 김경옥(47) 씨는 "양산에 있는 심인당에서 신행생활을 하다 큰 맘 먹고 울릉도에 왔다. 올해가 창종 70년이라 더욱 뜻 깊고 가슴 뭉클하다"며 "종단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해 한국불교를 하나로 뭉치는 데 선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튿날 오전, 성초 정사와 회정 정사를 비롯한 종단 중진은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 행정선을 타고 독도를 방문했지만 파고가 높아 접안하지 못한 채 울릉도로 돌아왔다. 이후 오후 7시에는 도동항 특설무대서 '독도아리랑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조선시대 공도(空島)정책으로 인해 섬을 떠났다가 조선후기 울릉도 개척령 반포에 따라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울릉도아리랑을 메인테마로 잡았다. 이 곡을 김회경 작곡가가 편곡하고, 경기소리꾼 이미리 씨가 불렀다. 아울러 장미여관 · 한영애 등 대중적으로 알려진 가수들도 대거 출연, 울릉도의 여름밤을 신명나는 음악으로 적셨다.

한편 7월 28일까지 이어진 회당문화축제는 도동항 소공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펼쳐 지역민의 호응을 얻었다.

울릉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진각 70년사〉를 종조 진영에 봉정하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금강원서 열린 무진서원불사 모습.



경기소리꾼 이미리 씨가 독도아리랑 콘서트서 울릉도아리랑을 열창하고 있다.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3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회장,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박청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9월 5일 ~ 12월 12일, 매주 월(月) 18:30~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9월 5일(월) 18:00 ~ 미래학특강 외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